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교

박미정¹ · 김희순² · 박소미³ · 최지혜¹

¹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가족건강관리학과, ³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Comparison of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ts

Mi-Jeong Park¹, Hee-Soon Kim², So-Mi Park³, Ji-Hea Choi¹

¹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²Department of Family Health Car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³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4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J city. The constructed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on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Results:**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suicidal impulse group and non-suicidal impulse group. The suicidal impulse group experienced lower self-esteem (OR=3.27), higher depression (OR=12.38) and higher aggression (OR=5.72) than the non-suicidal impulse group.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tegrated and effective interventions are needed to prevent suicidal attempts by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s of suicidal impulse. Information on the cogni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mus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interventions.

Key words: Suicide, Self-esteem, Satisfaction, Depression, Aggression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자살은 2009년 10-19세 청소년 사망 중 운수사고나 악성 신생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발생 빈도 또한 2008년 인구 10만 명당 9.4명에서 2009년 13.0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9)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강한 충동성향과 문제행동은 자살에 대한 충동적인 생각을 성인보다 쉽게 불러일으키는데(Jang, Kim, & Cho, 2007), 전국 3,117명의 청소년 가운데 48.6%가 자살충동을 느꼈고, 이 중 13.7%는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며, 6.4%는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보고한 한국 청

소년 상담원의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Jeong & Cho, 201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충동 관리 및 중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Jang & Lee, 2010).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의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신체상, 자아개념(Chung, Ahn, & Kim, 2003; Jang & Lee, 2010; Seo, 2006), 정서적 측면의 우울, 스트레스, 불안, 무망감, 삶의 만족도 및 고립감(Eom, Kang, & Choi, 2008; Seo, 2006) 및 사회적 측면의 반응적 양육태도, 교우관계, 차별, 대인관계에서의 공격성, 자살수단 접근 용이성(Eom, 2008) 등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자아존중감(Kim & Kim, 2004), 지각된 삶의 만족(Shin & Hwang,

주요어: 자살충동,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i-Hea Choi

Department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417 Ilsan-dong, Wonju 220-701, Korea

Tel: +82-33-741-0379 Fax: +82-33-743-9490 E-mail: jiheachoi@yonsei.ac.kr

투고일: 2011년 9월 29일 / 1차수정: 2011년 10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18일

2006), 우울(Seo, 2006) 및 공격성(Ahn & Lee, 2009)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표현, 인내, 자기 확신 및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으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2006). 특히, 청소년기의 저하된 자아존중감은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하여 부적응적이고 자기 거부적인 청소년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Lee, 2009), 우울이나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조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Lim, 2002; Valente, 2010). 둘째, 지각된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각하는 것으로(Back, 2004), 국내 청소년에서는 학업 부담감이나 진로 관련 스트레스로 인해 학년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 정도가 저하됨을 보였다(Shin & Hwang, 2006). 반면, 성적과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을 때, 남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Chung et al., 2003; Lee, 2009). 청소년기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좌절감, 무력감 및 소외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가출충동, 음주 및 자살충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 유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 2005). 셋째, 우울은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울증을 진단 받은 청년의 약 30%가 자살을 했다는 연구결과(Christiansen & Larsen, 2011)는 우울이 자살시도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게 한다. 우울은 청소년기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로(Seo, 2006), 심리적 불안과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나 사회에 반항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Jackson & Nuttall, 2001; Son, 2005). 넷째, 공격성은 대인간의 상호작용 시에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Ahn & Lee, 2009). 그러나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비행행동이나 폭력행동과 쉽게 연관될 수 있어,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잠재된 공격성은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자살시도로 이끄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Eom et al., 2008).

청소년 자살충동에 대한 연구로는 자살과 관련된 현상의 서술(Christiansen & Larsen, 2011; Jang et al., 2007), 영향요인의 규명 및 분류(Choi, 2010; Eom, 2008), 영향요인 간의 인과적 관계(Seo, 2006) 및 자살예측 변인의 확인(Jang & Lee,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성별, 연령, 전공계열 등만을 고려하여 선택된 청소년 전수의 설문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특징적인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살충동의 주요 영향요인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정도를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간호의 관심대상인 자살충동 경험 청소년의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학교 보건간호사나 지역사회 간호사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중재전략 개발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을 비교·분석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관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을 확인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교차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을 비교하는 횡단적 비교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본크기 산출 프로그램인 G*Power 3.1.2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방법, 양측검정, 중간효과 크기 .50,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입력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210명, 각 군당 105명을 최소 목표수로 하였다.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성별, 학년, 대입준비 상황 등이 영향력을 미치므로, J시의 중학교 2, 3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급을 성별 및 학년을 고려하여 각 계층(strata)으로 구분하고 각 층의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학급의 모든 남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의뢰하는 층화 무작위 표집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그룹 간 각 변수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설문지 수거 시 자살충동 경험 유무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가 각 군당 최소 목표수를 충족시킬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자살충동 경험 청소년의 설문지가 110부 수집되었을 때 자료 수집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자살충동 경험군 110명 가운데 불충분한 응답자 8명을 제외한 102명과 자살충동 비경험군 160명 가운데 불충분한 응답자 13명을 제외한 147명, 총 249명이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이었다.

연구 도구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Cooper-smith, 1967), Rogenberg (1965)가 개발하고 Jeon (1974)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측정도구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 범위가 25-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중고등학생 각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체나 서술을 재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9$, Je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지각된 삶의 만족

지각된 삶의 만족은 삶의 만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매우 만족한다)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측정값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 20-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삶의 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는 예비조사에서 질문문항의 의도를 청소년이 이해하는지를 중·고등학생 각 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후 본 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우울

우울은 Kim, Kim과 Won (1984)이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중 우울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우울에 대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총점은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 범위가 20-100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2$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측

정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되어 문항의 수정 없이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공격성

공격성은 대인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를 위해 개발되었고 Ahn과 Lee (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제행동 측정도구 중 공격성에 대해 묻는 6문항만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총점은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가능한 점수 범위가 25-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hn과 Lee (200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측정도구는 예비조사에서 중·고등학생 각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한 후 문체나 서술을 재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충동 경험 유무

자살충동 경험 유무는 자살에 대한 충동적인 생각에 대한 경험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한번 이상 한 적이 있는가?”라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 문항은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수정 없이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각 학년 주임 및 학급 담임교사의 허가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에의 철회 가능성 및 응답한 자료는 연구에만 쓰일 것임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 자가 보고식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20-30분)이 제공되었으며, 자료 수집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대상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에 청소년들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 센터 및 생명의 전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두 군 간 일반적 특성의 비교는 χ^2 test를 이용하였다. 두 군 간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자살충동 경험유무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집단별 자살충동 경험에 따른 교차비는 정해진 기준집단을 근거로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 결과 모든 변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교

자아존중감 점수는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8.38, p<.001$), 자살충동 경험군(평균=63.28, 표준편차=10.72)보다 자살충동 비경험군(평균=73.95, 표준편차=9.16)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삶의 만족 점수도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5.38, p<.001$), 자살충동 경험군(평균=65.49, 표준편차=21.28)보다 자살충동 비경험군(평균=79.95, 표준편차=9.16)이 지각된 삶의 만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우울 점수의 경우에는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12.38, p<.001$), 자살충동 경험군(평균=65.80, 표준편차=17.02)이 자살충동 비경

험군(평균=40.84, 표준편차=13.42)보다 우울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공격성 점수의 경우에서도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8.50, p<.001$), 자살충동 경험군(평균=55.87, 표준편차=15.59)이 자살충동 비경험군(평균=40.48, 표준편차=11.33)보다 공격성의 점수가 높았다(Table 2).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 비교

자살충동 경험군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는 성별($t=4.89, p=.029$), 어머니 학력($t=5.89, p=.017$) 및 지각된 경제수준($F=4.72, p=.010$)에 따라 자아존중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았다. 지각된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자살충동 경험군에서는 지각된 경제수준($F=6.04, p=.003$)과 여가활동 이행 유무($t=5.04, p=.027$)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이행할수록 지각된 삶의 만족 점수가 높았다. 또한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도 지각된 경제수준($F=8.68, p<.001$)과 여가활동 이행 유무($t=10.01, p=.00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경제수준이 높고 여가활동을 이행할수록 점수가 높았다. 우울의 경우에는, 자살충동 경험군에서는 지각된 경제수준($F=3.16, p=.047$),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는 성별($t=14.20, p<.001$), 학력($F=14.63, p<.001$), 지각된 학습량($F=4.48, p=.013$)에 따라 우울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자살충동 경험군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각된 학습량이 부족하다 느낄수록 우울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공격성의 경우에는, 자살충동 경험군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는 성별($t=10.5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격성의 점수가 높았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Suicidal Impulse Group and Non-suicidal Impulse Group (N=249)

Variables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χ ²
	n (%)	n (%)	n (%)	n (%)	
Gender	Male	35 (34.3)	67 (45.6)	2.71	
	Female	67 (65.7)	80 (54.4)		
School	Middle	42 (41.2)	67 (45.6)	0.31	
	High	60 (58.8)	80 (54.4)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50 (50.5)	68 (46.6)	0.22	
	> High school	49 (49.5)	78 (53.4)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66 (66.7)	85 (59.0)	1.15	
	> High school	33 (33.3)	59 (41.0)		
Perceived family income level*	High	15 (15.2)	18 (12.4)	1.12	
	Middle	59 (59.6)	96 (66.2)		
	Low	25 (25.3)	31 (21.4)		
Perceived study loading	Much	40 (39.2)	47 (32.0)	3.31	
	Appropriate	24 (23.5)	50 (34.0)		
	Little	38 (37.3)	50 (34.0)		
Leisure	Yes	64 (62.7)	106 (72.1)	2.02	
	No	38 (37.3)	41 (27.9)		

*Excluded missing data.

Table 2. Comparison of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between Suicidal Impulse Group and Non-suicidal Impulse Group (N=249)

Variables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t (p)
	Mean (SD)	Mean (SD)	
Self-esteem	63.28 (10.72)	73.95 (9.16)	-8.38 (<.001)
Perceived life satisfaction	65.49 (21.28)	79.95 (9.16)	-5.38 (<.001)
Depression	65.80 (17.02)	40.84 (13.42)	12.38 (<.001)
Aggression	55.87 (15.59)	40.48 (11.33)	8.50 (<.001)

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Suicidal Impulse Group and Non-suicidal Impulse Group (N=249)

Variables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ggression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F/t (p)	M (SD)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F/t (p)	M (SD)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F/t (p)	M (SD)	Suicidal impulse (n=102)	Non-suicidal impulse (n=147)	F/t (p)	M (SD)
Gender																
Male	62.79 (11.56)	75.75 (8.82)	4.89 (.029)	60.57 (20.86)	2.90	62.17 (17.74)	2.46	81.85 (17.22)	2.44	36.48 (10.71)	14.20	51.08 (13.20)	5.05	37.2 (69.10)	10.54	
Female	63.52 (10.34)	72.44 (9.22)		68.06 (21.19)		67.70 (16.45)		77.25 (17.93)		44.50 (14.41)	<.001	58.31 (16.20)	(.027)	43.17 (12.33)	(.001)	
School																
Middle	64.33 (10.98)	74.78 (9.77)	1.01	68.10 (19.28)	1.07	61.90 (16.46)	3.85	80.62 (19.03)	0.64	36.42 (10.97)	14.63	56.67 (17.62)	0.18	38.76 (10.85)	2.87	
High	62.54 (10.56)	73.25 (8.62)		63.67 (22.55)		68.53 (17.01)		78.25 (9.22)		44.55 (14.21)	<.001	55.31 (14.09)		41.42 (11.59)		
Educational level of father																
≤ High school	62.25 (10.18)	73.09 (8.38)	1.05	64.40 (21.11)	0.47	68.16 (15.29)	1.95	77.01 (17.84)	1.87	39.06 (13.13)	2.20	56.19 (15.24)	0.00	39.07 (11.40)	1.97	
> High school	65.11 (10.81)	74.65 (9.83)		67.35 (21.48)		63.43 (18.29)		81.04 (17.44)		42.36 (13.65)		56.05 (16.10)		41.71 (11.28)		
Educational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63.71 (10.03)	72.50 (8.70)	5.89	65.45 (22.06)	0.17	66.30 (15.78)	0.57	77.62 (17.40)	2.20	41.32 (14.12)	0.21	55.08 (15.59)	0.42	40.31 (11.39)	0.11	
> High school	64.46 (9.70)	76.19 (9.34)	(.017)	67.27 (18.59)		63.64 (18.18)		82.07 (17.85)		40.27 (12.75)		57.17 (14.32)		40.96 (11.50)		
Perceived family income level																
High	64.82 (8.85)	77.78 (7.90)	4.72	74.67 (24.26)	6.04	63.47 (13.51)	3.16	88.89 (14.10)	8.68	40.67 (13.18)	0.45	52.22 (16.07)	0.57	44.26 (15.07)	1.20	
Middle	64.58 (10.50)	74.53 (9.23)	(.010)	68.81 (19.04)	(.003)	63.59 (17.64)	(.047)	81.06 (16.16)	<.001	40.33 (13.45)		56.95 (14.12)		40.00 (10.44)		
Low	60.63 (11.19)	70.08 (8.74)		54.40 (20.43)		73.12 (14.90)		69.68 (19.23)		42.97 (13.58)		56.80 (18.42)		39.46 (11.74)		
Perceived study loading																
Much	61.81 (11.94)	74.47 (9.44)	1.86	64.00 (22.74)	0.31	63.80 (17.23)	0.46	74.47 (9.44)	0.84	39.66 (12.67)	4.48	57.95 (16.94)	1.02	42.55 (13.46)	1.77	
Appropriate	64.58 (10.31)	75.40 (8.80)		68.33 (18.57)		66.67 (17.48)		75.40 (8.80)		37.60 (12.75)	(.013)	56.94 (14.51)		38.27 (10.52)		
Little	64.03 (9.79)	72.00 (9.09)		65.26 (21.65)		67.37 (16.75)		72.00 (9.09)		45.20 (13.86)		53.07 (14.75)		40.73 (9.63)		
Leisure																
Yes	64.88 (8.61)	74.74 (9.24)	2.90	69.06 (19.17)	5.04	65.13 (16.53)	0.27	74.74 (9.24)	10.01	40.30 (12.22)	0.62	54.64 (14.54)	1.11	40.88 (11.55)	0.48	
No	60.66 (13.19)	71.89 (8.71)		59.47 (23.47)	(.027)	66.95 (17.98)		71.89 (8.71)	(.002)	42.24 (16.22)		58.02 (17.24)		39.43 (10.82)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상관관계

자살충동 경험군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삶의 만족($r=.52, p<.001$), 자아 존중감과 우울($r=-.52, p<.001$), 지각된 삶의 만족과 우울($r=-.31, p=.002$)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살충동 비경험군의 경우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삶의 만족($r=.46, p<.001$), 자아 존중감과 우울($r=-.35, p<.001$), 지각된 삶의 만족과 우울($r=-.19, p=.024$)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교차비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공격성이 자살충동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구변수마다 집단평균을 기준으로 기준집단을 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3.27배(95% CI=1.56-6.89), 우울은 12.38배(95% CI=5.83-26.27), 공격성은 5.72배(95% CI=2.74-11.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충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논 의

청소년의 자살은 청소년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으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9), 청소년의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는 사회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학교 보건간호사가 책임지고 있는 현 보건환경에서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간호학적 측면의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Jang과 Lee (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3,117명의 청소년 가운데 48.6%의 청소년이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전체 249명의 연구대상 가운데 102명(40.9%)이 자살충동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여 국내 청소년의 자살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자살충동 관련변수를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가운데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인지적 측면의 자아존중감, 정서적 측면의 지각된 삶의 만족과 우울, 사회적 측면의 공격성을 주요변수로 하여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 간의 변수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N=249)

Variables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r (p)		
Suicidal impulse (n=102)	Perceived life satisfaction	.52 (<.001)		
	Depression	-.52 (<.001)	-.31 (.002)	
	Aggression	-.17 (.100)	-.07 (.478)	.15 (.144)
Non-suicidal impulse (n=147)	Perceived life satisfaction	.46 (<.001)		
	Depression	-.35 (<.001)	-.19 (.024)	
	Aggression	.02 (.792)	-.01 (.887)	.02 (.775)

Table 5. Comparison of Odds Ratio to Self-esteem, Perceived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ggression according to Experience of Suicidal Impulse

(N=249)

Variables	Odds ratio	95% CI*	p
Self-esteem			
< Mean score	3.27	1.56-6.89	.002
≥ Mean score	1		
Perceive life satisfaction			
< Mean score	1.47	0.69-3.11	.326
≥ Mean score	1		
Depression			
< Mean score	1	5.83-26.27	<.001
≥ Mean score	12.38		
Aggression			
< Mean score	1	2.74-11.94	<.001
≥ Mean score	5.72		

*Confidence interval.

청소년의 자살충동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낮고, 우울 및 공격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om (2008), Jang과 Lee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인지·정서·사회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의 자살충동은 한 개인의 단면적 측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충동 관리를 위한 다차원적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자살충동 경험군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 없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나, 자살충동 비경험군은 성별, 어머니 학력, 지각된 경제수준 및 지각된 학습량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Jang & Lee, 2010; Seo, 2006)와 유사한 결과로, 자살충동 경험의 유무에 대한 선별 없이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비교·분석하였던 선행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을 구별하여 자살충동

경험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각된 삶의 만족은 두 군 모두에서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가활동을 할수록 유의하게 삶을 만족스럽게 지각하였다. 특히, 여가활동 유무는 Lee (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어 청소년의 여가활동 시간이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시간적·환경적 요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진로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국내 청소년(Moon, 2008)에게 심리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지각하도록 돕고자 하는 노력이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충동적인 생각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우울은 자살충동 경험군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는데 반해,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는 여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및 학습량이 많다고 느끼는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자살충동 비경험군에서 우울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전수를 대상으로 자살충동과 우울의 관계를 조사하였던 다수의 선행 연구들(Seo, 2006; Son, 2005)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실제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낮은 경제 수준만이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공격성은 두 군 모두에서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남학생의 공격성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공격성으로 인한 비행이나 폭력행동이 남학생에서 현저히 많다는 Kim과 Kim (2004) 및 Shin, Lee, Lee와 Shin (200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대상의 특성에 의한 상반된 결과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 표현되지 않는 잠재된 공격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여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특성을 다루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공

격적인 성향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환경적 뒷받침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살충동 경험군과 비경험군 모두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지각된 삶의 만족이 높았고, 우울은 낮았으며, 지각된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았다. 특히, 우울은 자살충동 비경험군($r=-.19$)에 비해 자살충동 경험군($r=-.31$)에서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Seo (2006)와 Choi (20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기의 우울이 자살충동 경험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 자살충동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우울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적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주요 정서장애의 초발연령(Rutter, 1989)인 청소년기의 우울관련 증상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심리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이 자살충동 경험에 미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연구대상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평균보다 낮은 청소년이 자살충동을 3.27배 이상 경험하였고, 우울이 평균보다 높은 청소년은 자살충동을 12.38배 이상, 공격성이 평균보다 높은 청소년은 자살충동을 5.72배 이상 경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우울,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정도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자살충동을 경험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우울이나 공격성의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중재 및 관리의 제공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사나 보건교사를 통해 청소년을 꾸준히 관찰하고 상담함으로써 우울 증상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잠재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있는 공격적 성향을 표출하도록 돕는 중재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청소년이 속해있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의 특성이나 문제를 조기에 확인하여 각 측면을 고르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의 모색도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도시의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로, 연구 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자살충동 경험을 회고하여 응답한 자료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도 연구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첫째, 연구변수가 청소년의 연령·학년별로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연령 및 학년별로 세분화한 후 특성을 전향적으로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하고, 둘째, 자살충동 경험유무에 상관없이 조사되어 청소년의 자살충동 영향요인이라고 밝혔던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본 연구의 연구변수를 기반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의 자살

충동 경험 청소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른 인지·정서·사회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 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 지각된 삶의 만족, 우울 및 공격성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평균이하인 경우, 우울이 평균이상인 경우 그리고 공격성이 평균이상인 경우에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이행할수록 지각된 삶의 만족 정도가 높아지고 우울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충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양육자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지각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이행할수록 지각된 삶의 만족 정도가 높아졌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지각된 학습량이 부족하다 느낄수록 우울 정도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공격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의 유무는 청소년의 인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 정서적 측면인 지각된 삶의 만족과 우울, 사회적 측면인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충동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삶을 만족스럽게 지각하도록 도우며, 우울이나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이고 연계성 있는 중재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Ahn, H. W., & Lee, J.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Child Studies*, 30, 77-88.
- Baek, Y. M. (2004). The effects of circadian rhythm on life satisfaction and optimistic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 809-821.
- Choi, I. J. (2010).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influence on adolescent's

-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05-130.
- Christiansen, E., & Larsen, K. J. (2011). Young people's risk of suicide attempts after contact with a psychiatric department: A nested case-control design using Danish register dat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1-10. doi: 10.1111/j.1469-7610.2011.02405.x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hung, H. K., Ahn, O. K.,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 107-126.
- Eom, T. W. (2008). Relation factors of hopeless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suicidal ideation: Regarding social support eff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 211-237.
- Eom, T. W., Kang, M. J., & Choi, J. S. (2008). Gender differences of the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22, 5-30.
- Jackson, H., & Nuttall, R. L. (2001). Risk for pre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 ecological model.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er Journal*, 18, 189-203.
- Jang, E. S., Kim, K. W., & Cho, Y. J. (2007). The effects of adolescent girls' stress and irrational belief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27-42.
- Jang, S. H., & Lee, M. A. (2010).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8), 27-55.
- Jeong, R. I., & Cho, H. J. (2010). Who are forcing children to a dead-end street? *Weekly News Magazine*, 1088. from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22#>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 Kim, C. G. (2006). Individual and socio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in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8, 91-107.
- Kim, H. S., & Kim, H. S. (2004). Aggression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3, 75-84.
- Kim, J. S., & Lim, Y. M. (2002).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 19-32.
- Kim, K. I., Kim, J. W., & Won, H. T. (1984).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Jungang Aptitude Publisher.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09). Rate of Mortality (1983~2009), from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12&path=NSI
- Lee, M. R. (2009). Development of adolescent anger experiences and effects of self-esteem, parent-, friend-, schoolwork-, and leisure-related contexts on i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 127-143.
- Moon, K. S. (2008).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role of self-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9, 285-29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9). Isle of wight revisited: Twenty-five years of child psychiatric epidemi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633-653.
- Seo, H. S. (2006).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for high school students's suicide th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 207-232.
- Shin, H. S., Lee, K. S., Lee, H. G., & Shin, K. S. (2004). Sex-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comorbidity of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on adjustment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 491-510.
- Shin, J. Y., & Hwang, H. W. (2006). The stres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effects of selected ecosystemic protective factor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 123-154.
- Son, B. D. (2005). Multi-variate predictors on the depressed mood and suicidal risk among ordinary adolescents and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207-228.
- Valente, S. M. (2010). Assessing patients for suicide risk. *Nursing*, 40(5), 36-40.